

연중 제18주일

기도서 405면 (B해)

제1독서 : 출애 16, 2-4, 12-15

제2독서 : 에페 4, 17, 20-24

복 음 : 요한 6, 24-35

# 숲정이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 35)

## 강론

### 무엇을 원하는가?

권 이복 신부 / 홍보국장

딱한 사정 속에 허덕이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일지 모른다. 남들이 보기엔 별달없이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들이 있는 법이다. 어찌 할 수 없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사연 속에서 한생을 살지 않으면 안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절로, 때로는 무당이나 점장이들에게 모여 든다. 더우기 어떤 신통력이 있다는 사람이나 장소엔 한(恨)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옛날 이스라엘 땅 나자렛 출신의 예수께 모여든 군중도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으리라. 그들은 가난하기에 배곯았고 힘이 없기에 서러웠으며 더우기 병까지 들고 보니 이제 갈 곳이 어디던가. 참으로 딱한 무리들... 인정많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달래 주셨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시고 병든자를 무료로 낫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빵과 기적이었다. 어찌하면 예수님의 힘을 빌어 배고픔을 면하고 어찌하면 그분의 힘을 빌어 출세하며, 어찌하면 그분의 힘을 빌어 병이 나을까? 하는 듯이 그들 모두의 관심 사항이었다. 「가난한 사람이 진복자이며, 죽어야 살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며, 스스로 낮추면 높이고 높이면 낮아 진다고 터져라 외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엔 그저 냉냉 할 뿐이었다. 참 평화의 길, 참 구원의 길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빵과 기적, 이것 만이 은총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이곳에 오게 한 이유였던 것이다. 이천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구하려 모여 드는가? 답답하고 안타까워 외치는 주님의 말씀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 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요한 6, 26-27)”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 없는 말씀일까? 이천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모습으로 하느님이 오셨듯이 동그란 밀떡의 모습으로 주님 내게 오심을 깨닫지 못한 채 성당문을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짓밟고...”(마태 7, 6) 하는 성서 말씀이 생각난다.

## 소리

### 울분의 야유와 해괴한 박수

지난 18일 「새마을재판」이 열린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좌석수 250)엔 1천여명의 방청객들이 몰려 이 재판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나타냈다. 물론 현장에 가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독재권력의 횡포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민가협회원과 일부 방청객들은 전 새마을회장 전경환피고인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달걀을 던졌다.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해서 울분을 토해낸 것이리라. 하지만 참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사법부도 우여곡절 끝에 수장이 바뀌고 뒤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독재자의 의도대로 정치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과 양심사이에서 고뇌한 법관들도 많았을 것이다. 젊은 법관들의 서명운동은 그같은 암울한 시대에 나아갔던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이요 양심선언이며 새롭게 태어나려는 결연한 몸부림이 아니던가. 이제는 조용히 지켜봐 주어야 한다. 폭풍전야의 정적이야말로 모든 비양심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형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 안팎에는 전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함천과 성장지인 대구 등지에서 올라온 50여명과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직원 50여명이 나와 전 피고인이 입장할 때 격려하는 박수를 쳤다고 한다. 이 박수부대는 야유와 욕설에 대항해 '맞고합가지 쳤다는 보도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비리에 관계 없는 선량한 대다수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과 농어민들의 가슴에 못질한 한 장본인에게 법정에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악화에게 쫓겨났다가 되돌아 온 양화인 김준 새마을회장은 상처투성이가 된 새마을운동의 맥을 잇기 위해 야3당이 내놓은 새마을조직 육성폐지법안을 폐지 대신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비리의 총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의 낮 두꺼움과 심장 강함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 숲정이 산책



미사중 예의를 지켜주세요.

# 노동과 인간

있는 자들의 시너로써 충성을 다하던 정치가 차츰 그 색깔을 달리 하면서 터져 나오는 갖가지 노사분규는 이젠 어떤 불안감마저 감돌게 한다. 이에 노사 문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1. 노동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하나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이는 창조주의 명령이며,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가족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자신이 태어난 국가, 자신이 한 구성원으로 있는 전인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인간은 노동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함께 진다.

2. 기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조건은 '최대 이윤'의 원칙이 아닌 '타당하고 근본적인 조건'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3. 각 사회와 국가는 일방적인 중앙통제력이 아닌 정의와 합리성에 입각한 조정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균등한 발전을 시키므로 '완전 고용'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노사관계를 보장하는 가

장 중요한 관건이다. 사회 경제의 정의는 그 체제 안에서 인간의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느냐에 달려있다. 노동에 관한 정당한 보수가 바로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수단이다. 성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란 가정을 꾸러 적절히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가정의 장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의미한다.

또한 임금 외에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보장'이 마련 되어야 한다.

노동중에 일어나는 사고, 의료혜택 휴가, 연가, 노후대책 등이 정의롭게 마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 가운데서 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 환경과 작업 과정에 관한 권리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5.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권리 즉 '단결권'에 의한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노동과 인간」에서)



## 성서와 함께

### 13. 이스라엘의 축제(B) : 오순절

이스라엘의 세 순례대축일들 가운데 두번째 축제는 오순절이다. 오순절은 첫 보릿단을 수확할 때 지냈던 가나안 농경민들의 맥추절에서 비롯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첫날부터 시작하여 칠 주간을 보내고, 시반달(5-6월) 6일에 이 축제를 지냈다(신명 16,9-12). 여기서 칠 주간은 50일을 뜻하기 때문에 회랍어 이름 ('펜테코스테') 곧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이 축제에 붙여지게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오순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온 이방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여 즉석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다. 이로써 과월절과 오순절은 그리스도교의 전례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과월절 시작과 맞아 들어가고, 성신강림주일은 과월절 후 50일에 지내던 오순절과 일치한다.

히브리인들은 이 축제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 우선 보리추수 시작에서 밀추수 끝으로 축제 날짜를 바꾸고, 보리 추수단 대신 누룩으로 만든 빵 두개를 봉헌하였다(레위 23,15-21). 그러나 맥추절의 본 의미인 만물을 바쳐야한다

는 생각은 그대로 고수하였다. 곡식의 첫 열매는 뒤따라오는 추수 전체를 대표한다.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씨앗을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의 육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래서 추수는 언제나 신성한 하느님의 업적이기에 곧바로 음식으로 바뀌지기 전에 먼저 곡식의 성장을 주관하신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이 정신은 구약성서 전편에 흐르고 있다.

신구약 중간시기에 이르러 순수한 농업축제였던 오순절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계약과 연결된다. 유대목시문학 중의 하나인 회년사(the book of Jubilees : 기원전 153-150) 6,17에 의하면 이 축제가 하느님과 노아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매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책 회년사 1,1에 보면 시반달(5-6월)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출애 19,1). 이렇듯 오순절은 처음에 가나안 농경민들의 축제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농업축제로 변하고, 후기 유대교 사상 안에서 시나이산의 계약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풍요롭게 된다.

####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가)  
오거리 나정형외과 앞  
☎ 74-1123  
3-6709

#### ㉠ 등본한의원

안도동 동본한의원  
정리과목: 한방내과·부인과·소아과  
침구과·한방요법실  
이리시 죽약동3가 26-4 ☎ 52-4666  
원장 김경환 (파비아노)

#### 신창규치과의원

원장: 신창규 (아오스팀)  
이연자 (모니카)  
위치: 인후아파트 2단지 앞  
☎ 4-2232

####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황수경  
산부인과전문 (크리스티나)  
이승렬 (엘리아)  
관동로 서울신막은행 건너편 골목  
☎ 84-7272

## 교 구 소 식

- ※ 축/ 시몬. 베드로 교육관 축성식: 8월 4일(목) 오전11시. 장소-수류천주교회.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께서 9월 26일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 1. 사랑의 다리 후원회 월례미사: 8월 1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 2. 8월중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 3. M. B. W 그리스도 기초 공동체 코-스: 일시- 8월 8일(월) 오전 10시~10일(수) 오후 3시, 장소-수류성당교육관, 회비-30,000원, 접수- 8월 4일(목)까지 교육국(85-0041). 대상-성직자, 수도자, 일반 남녀, 집결- 8월 8일(월)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 4. 성모의 푸른 군대 피정: 8월 4일(목), 덕진천주교회(10시-16시) 광주 올리바 자매님 초청(미사도구, 도시락).
- 5. 성모기사회: 8월 6일, 성인 오전 10시, 청년 오후 6시 저녁미사후: 효자성당
- 6. 전화번호 변경 안내: 신풍 천주교회 사무실 44-2271 사재관 44-2272 수녀원 44-2273.
- 7. 휘폴라레 8월 수도자 모임은 없습니다.
- ※ 축/ 영명 성 이나시오(31일): 성태수, 안철문 신부님. 축하합니다.

### 성모성년 폐막 성모마리아 신심을 위한 기도행사 안내

한국 교회는 성모성년동안 각 교구 또는 본당별로 성모성년 개막미사 봉헌을 비롯, 특별피정, 9일기도, 묵주의 기도, 삼종기도를 권장했고 순례성당을 지정하여 이 기간중은 총을 풍부히 받을 수 있도록 선대사를 유포하였었습니다. 이제 성모성년을 8월 15일 폐막하며 성바로로 달 수도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습니다.  
8월 9일-행사개막·성체조배 오후 3시~4시 8월10일~14일까지 성체조배 오후3시~4시  
15일-폐막 성체조배와 성체강부  
※ 이 기간동안 성바로로 사원의 책과 카세트, 비디오등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두려움 — 세계 성모대회를 앞두고

### 사주(四柱) 관상(觀相)

옛날 장자(莊子)라는 스승에 열자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열자가 사람의 과거지사를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는 무당에게 빠져 그만 도 닦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스승은 열자에게 그 무당을 데려와 자신의 점을 쳐 보라고 하였다. 무당은 스승의 관상을 본 후 열자에게 당신 선생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자가 울며 그 말을 전하자 스승은 다시 데려오라고 하였다. 다음날 무당은 "당신 선생은 다행히 나를 만나서 살게 되었소.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라고 하였다. 열자가 기뻐하며 말을 전하자 스승은 또 다시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렇게 몇 번 무당은 스승의 관상을 보았지만 매번 그의 얼굴이 바뀌자 나중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고 말았다. 그래서야 열자는 참된 공부를 못했음을 스스로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밥도 짓고 돼지 기르기를 사람 대하듯하며 정성껏 일하였다. 즉 모든 허식을 털어버리고 본래의 소박하고 진실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신앙은 삶 자체이다. 어떤 신비스런 일을 체험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자는 것이 아니다. 더우기 미래가 불안하기에, 불행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며, 미리 그 액땜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참된 신앙은 현재 자신의 삶,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삶 속에 스며 있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들이다. 오늘도 우리의 '밥'이 되어 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그저 황송해 하며 벅찬 마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주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단 한 마디 '주여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 정신과학 세미나

- 주제: 고도의 정신 및 두뇌 활용법
- 효과: 스트레스해소, 기억법, 집중력, 신앙심화, 수면조절법,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테크닉
- 일시: 8월 8일(월) 8월 11일(목) 오후 2시, 7시
- 장소: 전주가톨릭센터(대강당)
- 연사: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참가비: 1,000원

### 희 소 식

독사뱀몰린 사람 전문치료  
단 1~2회 족석에서 효과 완치  
송 준의(발리바)  
전주시 전마동 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시내버스안배: 9번, 31-1, 31-2, 31, 49번  
☎ (야)5-3544, (주)3-8441

## 요심이(782) 김병오

성고문을한 문귀동에게  
징역5년의 유죄선고!

문피교인을 볼기소  
결정을 내린  
검사들과...

재정신청을 기각한  
고법 판사들과...

관계기관 대책위원들은  
눈금만치라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겠지!

### 1분 명상

생명으로  
충만된  
하루하루를  
살자.

### 명동피부과의원

### 현대미용학원

김 금순 (테레사)  
학생 수시모집  
피부관리사 양성  
전주중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 86-2211

### 서울직영 전주직매장

### 하리방등가구전문

박 정근 (요 썸)  
허 금순 (마리아)  
금양동 분수대옆 영진빌딩 1층  
☎ 5-5365

###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부설: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균 (아오스팅)  
윤 귀자 (로사리아)  
병원 84-7288 자 8-8417  
관동로 전주백화점 →다가교 중간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우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첫영성체 및 축하파티: 8월7일 공식미사후
2. 첫고백성사 및 유아세례: 8월6일 오전10시-유아세례 10시30분-첫고백
3. 성모승천 성가연습: 8월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30분
4. 예수 성심회 물놀이: 8월5일 10시출발 장소-고산중앙
5. 꾸르실료강습: 8월4일~7일 김춘택(아우구스띠노)축하합니다.
6. 노승ME 전체나눔의 모임: 8월1일 오후6시 교터산장
7. 반희장 모임: 8월5일 오전10시30분
8. 여름 성경학교 운영에 협조해 주신분과 은인들께 감사드립니다.
9. 공소 여름 성경학교: 왕정리, 신원리, 황우리, 신교리 4개공소 \*어린이는 왕정리 강당으로 모여주세요. 8월1일~6일 매일 오전 9시

☐지난주봉헌금: 708,800원 ☐교무금: 74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청년성가대 성가연습: 8월1일부터 20시 3. 축 창립 밀알회: 8월3일 19:30 회장-이주자 총무 노순덕 4. 제대회: 8월4일 오전10시 5. 어머니성가대 릴레이: 5일 오전11시 6. 성체강복: 6일 저녁미사후 7. 대건회: 7일 공식미사후 8. 사목회: 7일 저녁미사후 9. 청년 수련회: 8~10일 무주안성 자연학습원 회비4,000 10. 초·중·고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수고하신 모든분께 감사 : -복자신협 이창숙 노순덕-각20,000씩 · 광태회 이경호 정영자-각12,000씩 · 나유순-10,000 · 김정자 백복순 최복주-각5,000씩 · 고봉남 최규옥 오신규-각3,000씩 · 소성녀 임춘희 김복림 고인순 박순자 최일병 김영옥-각1,000씩 · 정동민-복숭아2상자 · 상관성당-복숭아5상자 · 빈첸시오-빵200개 · 조중대-야구르트200개 계: 137,000원 누계: 1,264,100원 · 금주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마 토-자비의 모후마 · 금주: 해설-이강림 독서①육경수 ②이현정 봉헌-육경수씨부부 · 차주: 해설-황말갑 독서①최재홍 ②김인식 봉헌-최재홍씨부부

☐지난주봉헌금: 390,910원 ☐교무금: 738,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1. 제대회: 공식미사후
2. 성체강복: 4일 어머니 미사후
3.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사제관 신축헌금: 총15,517,000 미납액1,403,000 조치과외원-20만원 감사합니다.
5. 중·고수련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오늘 어린이 미사: 없습니다.
7. 여름·성경 학교: 오늘 야영(4,5,6학년)

☐지난주봉헌금: 186,300원 ☐교무금: 72,500원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이순성  
사무실 84-2276 사목회장 김할웅  
수녀원

- ※ 금주강론: 성체성사②
1. 회 의:
    - ①사목회-3일, 오후8시
    - ②자모회-2일, 오전10시30분
    - ③울뜨레아-18일로 연기함
    - ④꾸리아-7일, 오후2시
  2. 행 사:
    - ①성체강복 및 조배-4일 오후7시30분
    - ②꾸르실료 남성29차수강-김봉환(스테파노) 유용산(바로로) 형제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알 림: 예비자교리-매주 일 공식미사후
  4. 감 사: 중·고생 하계수련회에 협조 해주신 모든분께

☐지난주봉헌금: 395,080원 ☐교무금: 155,000원

## \*전동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이수현  
수녀원 84-8347 보좌신부 김진화

- 제자야무실 83-5085 사목회장 안득수
1.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성가정회: 8월1일 오전11시
  3. 주일학교 후원회: 8월2일(화) 오전11시
  4. 24시간성체조배: 8월4일 저녁미사후-5일 저녁미사전까지(사건배정표는 계사관에) 5. 성령기도회: 8월5일(수) 저녁미사후.
  6. 재속글라리 형제회: 8월6일(토) 오후1:30분 미사 \*구역봉사자모임: 8월7일(일) 저녁미사후(사제관)
  7. 본당내청년연합회단합대회: 8월7일(일) 장소-진안보정리 회비-1,000원 \*본당 청년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접수는 사무실)
  8. 감사합니다:
    1. 주일학교 교실에 선봉기12대 기증-송하기(안드레아)
    2. 사제관 에어컨 3대 기증-이성숙(안셀라)외2분
  9. 여름성경학교 중·고하게교리 젊은이 참가대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 성경읽고쓰기: 8월1일부터 27일까지 많이 읽고 쓰신분에게 사 상있음. 제출기간-8,27-28. ☐나눔의 헌금: 54,670원

☐지난주봉헌금: 1,007,380원 ☐교무금: 950,000원

## \*중화산동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웅무

1. 나눔의 주일: 불우이웃을 위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2. 성모회의: 금요일 어머니미사후(8월5일)
3. 안심리 공식미사: 금요일 저녁9시
4. 유아세례: 8월6일 오전2시
5. 감사: 사무실 전화통 1대 이세홍기증, 메가폰1대 이근호 기증
6. 주일미사시간: 9:30주일미사 11:00공식미사 16:00중고생미사 20:00저녁미사
7. 성가연습: 주일미사전 15분전, 토요일 오전10시
8. 예비자 교리시간: 수요일 오전10시 미사후 동남삼정 오후2시, 8시저녁미사후 성당 주일 오전9:30 사제관
9. 예비자 특별교리: 9월~13일 매일 저녁미사후 영세일-14일 오후2시
10. 풍소승천 고백성사: 매미사전

☐지난주봉헌금: 297,520원 ☐교무금: 304,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1. 신축헌금 신입자: 김소래5만원, 상현주5만원, 서기만1만원, 조흥기10만원, 정양동10만원, 정순태10만원
2. 8월3일(수)-자모회: 오전10시, 성심회-오후2시
3. 사목회: 8월6일(토)-오후8시 성당
4. 새 성전 축하제대꽃 봉헌: 신내철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5.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새 성전으로 이사하였습니다. 협조하여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7. 새 성전 비품마련에 은인유 감사합니다.
8. 금주진례: 해설-함분권 독서1김광탁 2서준옥 봉헌-권하열 부부 해설-문치구 독서1차동주 2김수중 봉헌-황의동 부부

☐지난주봉헌금: 461,320원 ☐교무금: 350,000원  
☐자선헌금: 28,620원 ☐신축헌금신입총액: 118,845,226원

##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1. 전신자 친목 야유회에 협조해 주신 교우분께 감사(6.25-29)
  2. 중·고생 하기 수련대회에 수고하신 교사들과 협조해 주신 분께 감사(6.26-29)
  3. 성모승천 대축일 성가연습(8.1-14일)
  4. 모임안내: ①한나회-금주 북요일 오전9시(교육관) ②요셉회-오늘 9:30분 미사후(독배)
  5. 기사회: 성인-금주 토요일 오전10시 청년-금주 토요일 오후6시미사후
  6. 전례담당 계사관 참조
  7. 성당청소: 금주-양지마을 다음주-효자2단APT 성모성년성체교육: 사목회원, 단계간부, L,M간부
- ※24시간 성체조배 목10-금10: 구역별 레지오별  
※오늘은 중화산동 성당 건립을 위한 2차 헌금있습니다.  
☐지난주봉헌금: 890,360(1,179명) 중고생헌금: 34,230원(157명)  
☐교무금: 1,099,000원 ☐금오나눔의 미사: 87,100원(136명)